전법특임교수 첫 임용…캠퍼스 전법 강화

동국대, 정각원서 임용식 개최
전법특임교수 13명 임용장 수여
돈관 스님 "각자 소임 다해달라"
퇴임 철우 스님 공로패 수여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27일 교내 정각원에서 '2025학년도 신하기관 신규 교원 · 직원 임용장 수여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처음으로 임용된 전법특임교수들의 기념촬영 모습.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캠퍼스 전법을 담당할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하고 첫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캠퍼스 전법 역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2월 27일 교내 정각원에서 '2025학년도 신하기관 신규 교원·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올해 신설된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임용되는 전법특임교수들의 임용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신설된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법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불교동아리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단의 적극적인 전법포교 활동을 지원하고 전법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의 원력을 바탕으로 한다. 평소, 돈관 스님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지위 보장을 통한 전법활동 확대를 강조해왔다. 이는 교내 전법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확보해주고,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캠퍼스 전법을 추진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임용·위촉된 전법특임교수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지안 스님을 비롯해 13명 스님이며, 9명은 지도법사로 위촉됐다. 이들 스님들은 서울·WISE캠퍼스 신행활동 지도와 불교동아리 신행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의 역할을 맡는다. 1년 단위로 임용되며, 연간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무엇보다 자기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라는 서원을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는 동국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국대 120년 역사 상 처음으로 전법특임교수를 임용했다"며 "전법특임교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와 법인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에는 5000명 재학생들은 미래의 청년불자들이고, 불성 종자들이다"라며 "이들 불성 종자들이 훌륭한 묘목에서 나무로, 나아가서는 울창한 숲으로 성장해서 동국대 전체가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교원과 교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번에 특임교수로 첫 임용된 지안 스님(서울캠퍼스 문과대학)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면서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이사장스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전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대는 이해원 의료원장, 동국대 부속 유치원장 능견 스님, WISE캠퍼스 정각원장 법천 스님 등 신임 기관장, 교원·교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또한 5년간 WISE캠퍼스 정각원장 소임을 맡았던 철우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철우 스님은 로터스관 건립 불사 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자리서 부단히 정진을"

중승대 2월 26일 학위수여식
박사·석사·학사 등 총 39명
상진 스님, 장학금 1000만원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는 2월 26일 교내 자비관에서 '2024학년도 중앙승가대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4명(현수·도선·도운·일승 스님), 석사 14명, 학사 21명(문학사 18명, 사회복지학사 3명) 등 39명이 학위를 받았다.〈사진〉

총장 월우 스님은 "오늘 졸업하는 학인스님들은 4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실력을 쌓았다. 이제는 종단과 사회를 위해 포교와 수행 정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 믿는다"며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다. 졸업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스님은 이어 "중앙승가대는 2023년 K-명상선학과를 신설했고,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불교의 통합적인 불교 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학원 성적 우수 졸업자 박사과정 도운 스님, 석사과정 인오 스님, 학부 전체 수석 우현 스님, 학부 전체 차석 용운 스님, 성적 우수자 대학원 일승·법봉·지경 스님, 학부 명우·정효·현묵·준재 스님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중앙승가대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시대가 변하더라도 수행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수행자의 가장 큰 덕목은 종교적 청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제자임을 잊지 말고 대중 속에서 포교·전법하는 대승보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그간 배움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그동안이 교(敎)를 배우고 연구했다면 이제 행(行)의 시간"이라며 "지율자(持律者)로서 계율을 지키고, 지경자(持經者)로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범행자(梵行者)로서 수행 정진해 계·정·혜 삼학(三學)을 증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진 스님은 장학기금 1000만원도 중앙승가대에 전달했다.

김포=김내영 기자

인도 분황사에 한글 현판…"한국불교 정체성 알리는 계기"

미래본부, 2월 25일 현판 제막식
송광사 현봉 스님 필체 '큰법당'



분황사 한글 현판 제막식 동참 대중들이 '큰법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세워진 조계종 사찰 분황사가 한글 현판을 제막하고 한불교의 법맥을 밝혔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인도 분황사는 2월 25일 분황사 경내에서 '분황사 한글 현판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공개된 '큰법당' 한글 현판과 한글 주련은 조계총림 송광자 방장 현봉 스님이 직접 분황사를 방문해 남긴 한글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큰법당' 현판과 더불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없으며'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두 사라진다' '새벽별 보고 깨달으시니' '나와 저 별이 둘이 아니다' 등 6개의 주련이 약 10개월의 기간을 거쳐 제작·설치됐다. 또한 견고하고 습기에 강한 '티크나무'를 채택, 현지의 고온다습한 기후에도 변형이 없도록 했다. 동방예술원 김쌍동 씨가 담당, 제작했다.

당초 지난해 제작·설치를 마무리한 뒤 송광사 사부대중과 제막식을 봉행할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방장 현봉 스님이 입적해 이날 제막식을 갖게 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가르침을 드높이는 법연"이라며 "오랜 정성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부다가야 분황사 건축 불사의 결실"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과 수행의 맥을 잇는 현판과 주련이 부처님 성지를 찾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의 근원인 부다가야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길을 찾자"고 당부했다.

분황사 건립 불사를 지휘하고 현지 한국불교 위상 강화에 진력하고 있는 본원 스님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곳 분황사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대표하며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최일선"이라며 "이제 한글로 쓰인 큰법당 현판식을 함으로써 세계만방에 분황사가 한국 사찰임을 당당히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도 분황사는 '깨달음의 성지' 부다가야에 건립된 종단 최초 한국전통양식 사찰이다. 통도사 청하문도회가 2000평을 기증하고, 설매·연취 보살이 큰법당 건립기금을 보시하면서 건립될 수 있었다.

임은호 기자

"자립준비 청년의 첫 홀로서기 응원"

아름다운동행, '희망플러스' 운영
청년 주거비 · 가구 구입비 지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희망플러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희망플러스' 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의 상당수가 주거비 부담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희망플러스'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희망플러스 프로그램은 2025년 2월부터 매월 1명의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만 18세~만 29세)을 선정해 주거비(전·월세비, 보증금) 또는 주거 필수 가전·가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다.

서울시 거주 자립준비청년 중 자립 의지가 강하고 구체적인 주거 계획이 있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아동보육시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정기후원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dreaminus.org)에서 가능하다. 02-6273-0108

임은호 기자

